

日本宮中儀禮에 茶道가 受容되는 過程과 政治的 意味*

朴 銓 烈**

ipark@cau.ac.kr

〈 目 次 〉

- | | |
|-----------------------|----------------------|
| 1. 서론 | 3. 천황의 의례에 도입되는 와비다도 |
| 2. 천황이 차를 즐기는 몇 가지 방식 | 4. 결론 |

Key word : 사가천황(The Emperor Saga), 막부(Shogunate), 궁중다회(Imperial Court Tea), 꼭다양생기(Kissayoutyoki), 슈가쿠인(Syugakuinn)

1. 서론

일본에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전래된 차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으로는, 734년부터 771년 사이의 정창원(正倉院) 문서 가운데 「도 15다발 값 12문(茶十五束 直十二文)」과 「도 7묶음 값 5문(茶七把 價錢五文)」을 상급자에게 청구한 기록이 있다. 「국가적 사업으로 사경(寫經)을 진행하면서 사경생(寫經生)의 식료 가운데 차를 구입하며 비용이 들어갔음」¹⁾을 말해준다. 여기서 「도(茶)」는 「차(茶)」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²⁾ 당시의 사경생들은 차를 마시면서

* 본고는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35981)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민족무용연구소 공동연구원, 일본문화론

1) 村井康彦(1985) 『茶の文化史』 岩波書店 p.10

2) 김진숙(2011) 『중국차문화 茶經』 국학자료원 p.329

중국 당대 陸羽(?-804)가 저술한 『茶經』에 茶란 「其名、一曰茶、二曰檟、三曰說、四曰茗、五曰葍 周公云、檟、苦茶」이라 하여 차茶, 가檟, 설說, 명茗, 천葍 등 5등급으로 나누는데, 「檟는 苦茶」라 했으니 「茶」는 「茶」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다가 점차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창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천황의 칙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찍부터 차와 왕권과의 관련이 나타나는 사례로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차의 기록은 차를 즐기거나 다도문화로 계승되지 않고 이 기록으로 일단 단절되고 만다.

차나무가 일본 자생종이 있었는가. 아니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차씨를 심거나 차 묘목을 가져다 심었는가에 대하여 학계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차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불교문화와 함께 차문화가 전래되었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는 왕권의 후원으로 전래되어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꽃을 피우며, 차문화는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로 출발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차는 고귀한 음료이자 왕실과 귀족의 상징물 혹은 독점물로서 왕권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에 차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중국문화에 대한 열의가 식고 국풍문화를 강조하는 풍토 속에서 차문화는 일단 쇠퇴하지만, 중세에 송나라를 통해서 다시 유입된 새로운 방식의 차문화가 일본의 다도로 재창조되며 오늘날에도 계승되는 개성이 강한 전통문화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본고는 일본의 궁중에서 차문화가 왕족이나 귀족 개인의 취미활동에 머무르는 단계에서부터 「궁중의례화」³⁾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각 시대의 차문화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궁중 정치와의 관계를 살피면서, 사료와 선행논문을 통하여 일본 차문화가 지닌 궁중의례로서의 의의를 정리하며 왕권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천황이나 귀족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차문화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차문화와 정치는 별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도는 개인의 즐거움이지 정치가 아니다」⁴⁾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차는 천황이 주재하는 「계어독정이나 대신의 향연 등 궁중 의례 가운데 남아서 지속」⁵⁾되는

3) 김홍래(2015) 「헤이안시대 발해사신과 약무교류 - 정월궁중의례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235-257 궁중의례에 외국문화의 영향을 논하는 위 논문에서 논의된 의례화의 개념 참조

4) 熊倉功夫(2004.2.18) 「茶の湯と民俗 -退任記念 講演會 講演録」 日本民族學博物館

정치 퍼포먼스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양면성은 매우 흥미롭다.

2. 천황과 귀족의 차

2.1. 천황에게 바친 중국의 차씨(茶種)

일본조정이 당나라에 파견하는 사신인 견당사(遣唐使)나 사적인 유학생, 나아가 사무역(私貿易) 등으로 중국에서 이입된 낱다 품습을 받아들인 시기는 주로 고닌연간(弘仁年間 810-820)에 사가(嵯峨 786-842)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궁중 관련 인물들이었다. 이 시기의 차는 『열심히 섭취하려 한 중국문화의 한가지이자 차가 지닌 선약(仙藥)으로써의 약효능을 중시하며 수용했던 것이다.』⁶⁾

당나라에 유학했던 승려 사이초(最澄 767-822)는 805년 당으로부터 귀국할 때 차씨를 가지고 돌아가서 히에이산(比叡山) 산기슭 사카모토(坂本)의 지역에 심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한편 에도말기의 1833년에 쓰여진 『고보(弘法)대사 연보』에는 『대사가 입당하여 수련을 마치고 귀국 때, 차를 가지고 돌아가, 사가천황에게 바쳤다』라고 하여, 806년에 귀국한 구가이(空海)도 중국으로부터 차를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차씨를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 휴대하기 편한 단차(團茶)를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⁷⁾

사이초(最澄)는 헤이안 시대의 승려로 일본 천태종의 개조이다. 오미국(近江国 현재 滋賀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선조는 후한(後漢)의 효현제(孝獻帝)의 후예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진(応神)천황 시대에 일본에 도래했다고 한다. 중국에 건너가 불교를 배워 귀국한 후에 히에이산(比叡山)에 엔라쿠사(延曆寺)를 세워 천태종의 개조가 되었다.

5) 中村修也(1999) 『榮西以前の茶』 『茶道の歴史 茶道学大系2』 淡交社 p.371

6) 谷端昭夫(2007) 『茶道の歴史』 淡交社 p.31

7) 村井康彦 前掲書 p.26

교통편이 여의치 않던 시대에 중국에서 가지고 온 차씨를 천황에게 바친다는 일은 왕권을 귀히 여긴다는 심정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왕권에 가까이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포교의 편이성을 기대하는 대상(代償) 심리도 작용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2.2. 황실을 위해 독경한 승려에 대한 보답의 차

부처님의 가호를 빌어서 국가를 수호하려는 진호국가(鎮護國家) 사상이 쇼무천황(聖武天皇)⁸⁾ 때에 도다이사(東大寺)나 각지에 고쿠분사(國分寺)의 건립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후에도 이런 사상은 계승되어 궁중에 승려를 불러 독경을 하는 법회를 열어 차를 대접하고 연회를 여는 행사를 「계어독경(季御讀經)」이라 했다. 737년 시작 당시에는 매년 4차례씩 진행되어 「사계어독경(四季御讀經)」이라 했고, 859년에는 궁중에 승려 64명을 불러, 궁중에서 「대반야경」 등의 경전을 독경하도록 했다. 877년 이후에는 계어독경이 정비되어 「매년 봄가을을 2차례씩 4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시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법회는 어전인 청량전(淸涼殿)과 남전(南殿)인 자진전(紫震殿) 2곳에서 진행되었고, 각각 20명과 80명의 승려가 초청되었다.」⁹⁾ 이후에 계어독경은 형식이 고정화되고 궁중의례로 정착되었으나, 정치적인 혼란기를 맞이한 14세기 후반부터 시행되지 않았다.

계어독경은 첫째날은 독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가 중심이지만, 둘째날에는 천황이 승려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례인 「인차(引茶 히키차)」¹⁰⁾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행차(行茶)」라고도 한다. 인차를 대접하는 방식은 나란히 자리 앉아 있는 승려에게 찻잎을 우려낸 차 즉 전차(煎茶)였는데, 덩어리로 굳힌 단차(團茶)를 부수어 물에 넣고 끓일 때 단맛이 나는 꿀(甘葛), 후박나무 껍질(厚朴), 생강 등을 넣어 맛이 나도록 했다. 「당일에는 차를 담당하는 공경(公卿)이 남전에서 대기한 가운데, 신하들이 병에 든 전차를 승려들의 찻잔에 따라주는데, 취향에 따라서 꿀(甘葛), 후박나무 껍질(厚朴), 생강 등의 감미료나 향신

8) 재위 72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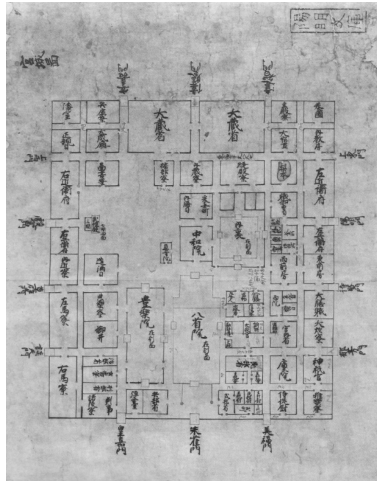
9) 佐野和規(1991) 「季御讀經における請僧」 『待兼山論叢史学篇』25 大阪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pp.57-82

10) 相馬範子(2005) 「季御讀經における引茶について」 『芸能史研究』169 芸能史研究会 p.1

료를 다완에 넣어주었다.」¹¹⁾

초기에 차는 당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전래된 최신 문화로서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차를 접대하는데 준비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9세기 후반부터 궁중에 다원(茶園)을 만들어 재배하며, 조차사(造茶使)라는 관리를 따로 두어 차를 가공하게 했다.

황실과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한 행사를 지속하기 위하여 차를 공급하고 승려를 위로하기 위하여 다원을 궁정의 일각에 마련할 정도로 차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림1> 宮城図의 다원(茶園)은 동북쪽 모퉁이에 1정(町)¹²⁾ 넓이로 배치되어 있다.

「다원은 전악료(典樂寮)의 소관이며 찻잎을 가공하는 조다소(造茶所)도 설치되었다.」¹³⁾

『경국집』에 수록된 「이즈모 태수의 차에 답하는 노래(和出雲臣太守茶歌)」¹⁴⁾

11) 谷端昭夫(2010) 『日本史のなかの茶道』 淡交社 p.20

12) 면적의 단위 1정은 약 10,000 평방미터

13) 若原英弼(1984) 「古代・中世の茶」 『茶道聚綿』2 小学館 p.34

14) 淳和天皇外(1926) 「経国集」 『日本古典全集』日本古典全集刊行会 p.174

淳和天皇의 勅命에 의한 漢詩集에 惟氏が 지은 雜言 和出雲巨太守茶歌一首

에서 다원은 산중에 있었던 것처럼 경사면이 차를 재배하기 적합하지만, 궁중에 직접 다원을 설치하여 차를 가까이 하고자 했다. 요메이문고(陽明文庫)가 소장한 『헤이안교대내리도(平安京大內裏圖)』 <그림1>에 묘사된 것과 같이 궁궐의 동북쪽 가장자리 땅에 『茶園』이 명시되어 있다. 다원(茶園)은 동북쪽 모퉁이 평지에 1정(町) 넓이, 즉 약10,000평방미터로 설치되어 있다. 다원은 비탈진 곳을 택하기도 하지만, 평지에도 많은 다원이 있었다. 『다원의 위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산간의 비탈진 곳을 선호하지만, 실제 일본의 차산지의 절반 정도가 평지에 있다.』¹⁵⁾

2.3. 천황에게 헌상되는 차

헤이안 초기 840년에 편찬된 칙선사서(勅撰史書)인 『일본후기(日本後紀)』에 사가천황이 본샤쿠사(梵釋寺)에 행차하여 승려 에이추(永忠 743-816)에게 차를 대접받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공식적인 사서에 처음 등장되는 차 관련기사로 중요시된다.

『815년(弘仁6년) 계해년 4월 계해 22일

계해(22일). 오미국(近江国) 시가(滋賀) 가라사키(韓埼)에 행차하다. 도중에 수후쿠사(崇福寺)를 지나갔다. 대승도(大僧都) 에이추(永忠), 고묘법사(護命法師) 등이 여러 승려를 인솔하여 절 문밖에 나와 맞이했다. 천황은 가마에서 내려서 법당에 올라가서 예불하고 나와서, 본샤쿠사에 들렀다. 천황은 가마를 멈추고 시를 지었다. 황태제(皇太子)를 비롯해 여러 신하들은 천황의 시에 화답했다. 대승도 에이추는 손수 차를 다려 천황에게 바쳤다. 그 보답으로써 천황은 의복을 하사했다. 그리고 나서 천황은 호수에 배를 띄우고 주유(舟遊)를 즐겼다!¹⁶⁾ 이어서 그 고장의 수장인

산중의 차(茗) 이른 봄에 탄 차나무 가지 / 새싹을 따서 차를 만드는 시기 / 산기슭의 노인 차를 좋아해 보배로 여기네 / 혼자 쇠술을 마주하고 앉아 차를 두고 말리고 하네 / 빈 숲 아래를 흐르는 맑은 물 / 비단형겉으로 거른 물을 은그릇에 받아두니 / 솟은 잠간 사이에 불꽃을 피워내네 (이하 필자 번역) / 山中茗早春枝。萌芽採撰為茶時。山傍老。愛為寶。獨對金鑊炙令燥。空林下。清流。沙中漉仍銀鑰子。獸炭須與炎氣盛。

15) 張建立(2004) 『茶道と茶の湯』 淡交社 p.110

16) 백제 무왕 39년(638년) 3월에 무왕은 큰 연못에 배를 띄우고嬪과 더불어舟遊를 했다. 또한 중국의 예를 보면 당 현종 때 華清宮에 인공연못을 조성하여 왕의 뱃놀이를 했다. 이처럼 고대 중국이나 한국문화의 흐름이 일본에 일종의 儀式的인 舟遊 형식을 만들어 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쿠시(国司)가 고장에 전해지는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5위 이하와 조(掾) 이하에게는 의복을 하사하고, 시쇼(史生) 이상 군지(郡司) 이상에게 목면을 하사하여 차이를 두었다.¹⁷⁾

고대 일본에는 많은 문물과 제도가 중국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는데, 차를 마시는 문화도 그중의 하나였다. 특히 고대 율령제도라는 국가의 근본을 중국에서 배워온 조정은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헤이안시대 초기의 사가천황은 특히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어서 여러 편의 한시집(漢詩集)을 짓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위의 기록은 사가천황이 지금의 시가현에 행차했을 때, 차를 대접받는 장면이다. 당(唐)에 30년간 유학했던 대승도 에이추는 중국문화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당에 머무르던 시기는 육우(陸羽)가 다도의 이론과 사상을 집대성한 『다경(茶經)』을 저술한 때였다. 이 에이추가 당에서 차를 마시는 습관을 익혔다고 생각된다. 「귀국후 10년이 되던 해에 천황을 영접하게 된 에이추는 중국에서 익힌 방법과 분위기를¹⁸⁾로 차를 대접했을 것이다.

에이추에게 차를 대접받은 사가천황은 「2달 뒤인 6월에 기나이(畿内)와 교토 인근지역에 차나무를 심게 하여 매년 차를 헌상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¹⁹⁾ 뿐만 아니라 「궁중의 동북쪽 모퉁이 자리에 1정 넓이의 다원(茶園)을 설치하여, 궁정에서 쓰이는 차의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했다.²⁰⁾ 이 다원은 헤이안 시대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므로 보아 당시의 차는 천황과 귀족이나 승려 등 한정적인 범위에서 널리 인지되고 실제로 마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문화에 심취한 귀족들 사이에 낚다가 유행했다고 생각된다.

(百濟本紀五 武王 十九年,春三月,王與嬪御泛舟大池)

金富軾(1993) 『三國史記』 卷三 第二十七 을유문화사 p.74

17) 佐伯有義(1929) 『日本後紀』 『六国史』 卷5 朝日新聞社 p.209

卷廿四 弘仁六年四月癸亥廿二癸亥。幸近江国滋賀朝崎。便過崇福寺。大僧都永忠。護命法師等。率衆僧奉迎於門外。皇帝降輿。升堂礼佛。更過梵釋寺。停輿賦詩。皇太弟及群臣奉和者衆。大僧都永忠手自煎茶奉御。施御被。即御船泛湖。国司奏風俗歌舞。五位已上并掾以下賜衣被。史生以下郡司以上賜綿有差

18) 熊倉功夫(1994) 『史料による茶の湯の歴史』(上) 主婦の友社 p.49

19) 熊倉功夫(1990) 『茶の湯の歴史』 朝日新聞社 p.33

20) 村井康彦(1984) 「茶の湯の成立と佐び茶の胎動」 『茶道聚編』2 小学館 p.49

2.4. 천황의 이상세계로 묘사되는 차

중국문화로써의 차는 중국인이 지닌 이상세계로써의 가공적인 차의 정신세계와 더불어 일본에 유입되며 이를 한시(漢詩)로 표현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점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창작 된 많은 다시(茶詩)가 실제 차를 끓이거나 마시면서 짓지만, 때로는 관념적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과 공간을 이상화하여 시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천황이 직접 짓거나 천황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차의 이상세계를 노래한 시는 초창기의 시가집에 이미 나타난다. 이런 예는 814년 사가천황의 칙명에 의해 편찬된 일본최초의 칙선 한시집인 『능운집(凌雲集)』, 818년에 사가천황의 칙명에 의해 편찬된 『문화수려집(文華秀麗集)』²¹⁾을 들 수 있다.

『능운집(凌雲集)』의 제10번 시는 사가천황의 어제(御製)로 여름날 좌대장군 후지와라노 후유쓰구(藤原冬嗣)의 저택에 행차하여 차 향기를 맡으며 그 즐거움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는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를 노니는 신선이라도 된 기분을 묘사하고 있다.

교토 서쪽의 사이도인니시(西洞院西)에 있던 후지와라노 후유쓰구(藤原冬嗣)의 저택 간인(閑院)은 명소로 알려진 곳으로 행차한 사가천황은 연회석에서 맛본 해방감을 다음과 같은 한시로 남겼다.

「여름날 좌대장군 후지와라 후유쓰구의 간교인에서
피서차 간인에 와서 연못의 정자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네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의 푸르름은 석양에 어두워지고
물굽이를 따라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는 이 더위를 식혀주네
시를 읊으며 향기로운 차를 찜기를 좋아하고
흥취에 끌려 악기를 타는 소리 듣기가 좋네
잠시 맑은 샘을 대하며 번뇌를 씻으니 어찌 이 적막한 날
기쁘지 않으리요.」²²⁾

21) 헤이안시대에는 천황이 학문과 문화를 권장함으로써 唐風文化는 황금기를 맞이한다. 「문장은 經國의 대업이니 不朽의 성대한 사업이다. 수명은 한계가 있어 언젠가 다하게 되고, 영락은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즉 수명과 영락은 반드시 마칠 때에 이르게 되지만, 아직도 문장은 끝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문학이념으로 『凌雲集』, 『經國集』, 『文華秀麗集』 등의 칙선 한시문집이 편찬되었다.

22) 嵯峨天皇外(1926) 『凌雲集』 『日本古典全集』15 日本古典全集刊行會 p.54

이때 천황은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잘 갖추어진 저택의 풍경과 더불어 시를 읊고 차를 마시며 악기 연주까지 들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상향이 바로 이곳이며 그간의 번뇌를 씻어버리니 천황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수려집』에서 준나(淳和)천황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초대한 주인이 자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좋은 차, 즉 향기로운 찻잎을 뺏으며 동안 기다리며 시를 읊조리고, 음악도 듣고 있다니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기 싫다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찻잎을 절구에 찧어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신다는 당시의 차 마시는 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천황이 신하의 저택에서 차를 마시며 악기를 타는(彈) 소리 즉 거문고나 가야금과 같은 계통의 현악 기연주를 들으며 흥취를 고조시키는 장면은 우아한 분위기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다.

『문화수려집』에 수록된 제9번 시는 준나천황의 어제로 여름날 좌대장군 후지와라노 후유쓰구의 저택에 행차하여 연회를 즐기는 자리에서 지은 것이라는 점은 앞의 작품과 유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 천황이 차를 즐기는 전형적인 형태의 한 가지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저택은 원래 찾는 이가 드물고
또한 수죽(水竹)은 여전히 한가로운 자태로다.
봄을 보내는 분위기로 장미와 산호의 예쁜 색깔
여름을 맞이하는 장식으로 해초와 거북이 얼룩무늬
햇빛을 피해 바람을 따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앉아
나이든 오동나무 사이에서 고(琴)를 연주하며 차를 찜으니
어가(御駕) 행렬의 분주함을 잊을만한 곳이 여기로구나
서산에 해는 졌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 잊었구나.」²³⁾

嵯峨天皇 御製 第十番 夏日左大將軍藤冬嗣閑居院 避暑時來閑院裏 池亭一把釣魚竿。
迴塘柳翠夕陽暗 曲岸松聲炎節寒。吟詩不厭搗香茗 乘興偏宜聽雅彈。暫對清泉滌煩
慮 況乎寂寞日成歡。

- 23) 淳和天皇外(1926) 『文華秀麗集』 『日本古典全集』15 日本古典全集刊行會 pp.77-78
淳和天皇 御製 第九番 夏日左大將軍藤原朝臣閑院納涼探得閑字忒製一首 此院由來人
事少。況乎水竹每成閑。送春薔棘珊瑚色。迎夏巖苔玳瑁斑。避暑追風長松下。提琴
搗茗老梧間。知貪鸞駕忘羈。日落西山不解還。

궁정문학에 차와 음악을 즐기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자, 차를 마시는 상황과 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천황은 바쁜 공적(公的) 자리를 떠나 신하의 사저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운 여름 한 때를 보내는데, 여기 차와 음악이 부수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휴식을 즐기고 있다. 잎사귀가 넓은 오동나무 아래는 좋은 그늘이 되는데, 여기서 고를 연주하고 차를 찜는 모습은 선경(仙境)을 연상하게 하는 풍류 넘치는 이상세계이기도 하다. 이런 시간에 파묻혀 정사(政事)도 다 잊고 돌아갈 일도 다 잊었다 혹은 잊고 싶다는 천황의 심정이 음악과 차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권력가의 선약으로 인식되는 차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며 정치의 실권을 장군이 장악하게 되자 천황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었다. 장군의 권력이 천황을 압도하던 시대에 임제종의 에이사이가 차와 차에 관한 저술을 장군에게 바침으로써 차가 권력에 접근하는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불교가 장군의 건강관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술의 집필방향을 보면 대중에게 차를 권하며 건강한 생활을 권장하는 에이사이의 승려로서의 자세가 잘 드러난다.

일본 최고의 다서(茶書)로 중시되는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저술한 묘안 에이사이(明菴榮西 1141-1215)는 임제종의 개조이며 오늘날에도 다도의 오랜 전통을 전하는 겐닌사(建仁寺)를 개산했다.

『꼭다양생기』는 에이사이가 꼭다(喫茶)와 꼭상(喫桑) 즉 차와 뽕의 약효를 설명하며 애용하기를 권하는 책이다. 따라서 무로마치 시대에는 한동안 『다상경(茶桑經)』이라고 불렸다. 일본 최고의 차에 관한 책으로서 유명하다. 상·하 2권으로 구성된다. 차는 양생의 선약(仙藥)이며, 장수의 묘술(妙術)이라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차의 생리학적 약효를 말하는 「오장회합문(五臟和合門)」(상권)과 귀신을 쫓아내는 뽕의 병리학적 약효를 말하는 「견제귀매문(遣除鬼魅門)」(하권)으로 나뉘어 있다. 본서는 1211년과 1214년 2차례에 걸쳐서 성립되었다. 이 책의 서문은 차의 오묘한 효능을 선약(仙藥)으로 단정하며 수명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정면에서 자극하며 차를 극찬한다.

「차는 양생의 선약(仙藥)이며, 장수의 묘술(妙術)이다. 산골짜기에 자라는데 지신

의 신령(神靈)이다.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장수한다. 인도, 중국에서도 모두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 일본 역시 즐기고 좋아한다. 예나 지금이나 진기하고 얻기 어려운 선약이다.

이것을 따지 않고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태초의 사람들은 천인(天人)과 같이 건강하고 튼튼했으나, 요즘은 사람들은 차츰 약해져서 신체나 내장의 5가지 기관이 썩은 나무처럼 쇠약해져 버렸다. 침을 놓아도 뜸을 놓아도 상처만 생길 뿐 낫지 않는다. 온천욕을 해도 소용없게 되었다. 혹시 이런 치료방법이 좋다고 하면 신체와 내장은 차츰 쇠약해져 엉망이 될 것이다. 이는 참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²⁴⁾

위의 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차와 빵의 양생효과를 알려 중생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차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에게도 현상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묘약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에이사이는 1214년에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가 숙취로 고통당할 때 차로 치료하여, 그 효능을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 기사를 실은 책은 『아즈마카가미(吾妻鏡)』인데, 가마쿠라시대에 성립된 역사서로 1180년부터 1266년 사이의 역대장군의 역사가 편년체로 1300년경에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에이사이가 장군에게 차를 바치고 이어서 책을 바쳤다는데 이 책이 바로 『꼭다양생기』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아즈마카가미』에 에이사이가 묘사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14년 2월 4일 맑음.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님이,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급해 했습니다만,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숙취겠지요. 기도하러 온 에이사이(榮西)가 이 말을 듣고, 좋은 약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주후쿠사(壽福寺)로부터 차를 가지고 오게 하여 한 잔 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친 한 권의 책은 차의 효과에 대해서 쓴 차 마시기를 권하는 책이었습니다.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좌선하는 사이에 이 글을 썼다고 말씀 드렸습니다.」²⁵⁾

24) 榮西(2000) 『喫茶養生記』 講談社 p.78

喫茶養生記 序 茶者養生之仙藥也。延齡之妙術也。山谷生之其地神靈也。人倫採之其長命也。天竺唐土同貴重之。我朝日本亦嗜愛矣。古今奇特仙藥。不可不摘也。謂劫初人与天人同。今人漸下漸弱。四大五臟如朽。然者鍼灸並傷。湯治亦或不応。若好此治方者漸弱く漸竭。不可不怖者歟。

『꼭다양생기』는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집필한 가장 오래된 다서로 널리 읽히며 차의 양생효과를 강조하는 명저로 인식되고 있다.

2.6. 역대천황에게 현상되는 명차

역대천황을 가까이서 모시는 여관(女官)들이 쓴 『어탕전상일기(御湯殿上日記)』는 1477년부터 에도시대 말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기록된 귀중한 일기이다. 이 일기의 1486년 2월 30일자에 「차를 마시는데 쓸 차잎이 도착되었다(御ちやのことして御ちやまいる)」에 이어서 「렌가회가 열렸고, 드디어 10종차(御れんかあり、はててししゆちや)」²⁶⁾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고쓰치미카도(後土御門) 천황²⁷⁾의 어소에서 여러 문인이 모여 시를 짓는 모임인 렌가회(連歌會)에 이어서 투차(鬪茶)의 일종으로 10종류의 차를 마시며 맛을 알아맞히는 놀이인 십종차승부(十種茶勝負)가 궁중에서 열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1496년 5월 16일조에 「도가노오(桐尾)로부터 매년 차가 27자루 배달된다(とかのおよりととしし御ちや廿七ふくろまいる)」²⁸⁾는 기사에 나타나는 차는 에이사이(榮西)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차종을 전해받은 고잔사(高山寺)의 승려 묘에이(明惠)가 도가노오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차나무에서 딴 차잎을 말한다. 매우 품질이 좋은 차로 정평 있는 도가노오 차가 정기적으로 궁중에 일정량이 현상되었다 함은 궁중에서 이미 차를 마시는 풍습이 정착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2.7. 황족의 놀이로써의 순사다회

『간문어기(看聞御記)』는 후시미궁(伏見宮)의 사다후사(貞成 1372-1456)친

25) 国書刊行会編(1915)『吾妻鏡』吉川本 中卷 国書刊行会 p.99

第廿二卷 建保二年二月大四日己亥。晴。將軍家聊御病惱。諸人奔走。但無殊御事。是若去夜御淵醉餘氣歟。爰葉上僧正候御加持之處。聞此事。稱良藥。自本寺召進茶一盞。而相副一卷書令獻之。所譽茶德之書也。將軍家及御感悅云々。去月之比。坐禪餘暇書出此抄之由申之。

26) 谷端昭夫(2005)『公家茶道の研究』思文閣 p.10 재인용

27) 1442-1500 재위 1464-1500

28) 谷端昭夫 上掲書 p.11 재인용

왕이 황실과 조정에서 일어난 일과 각종 의례를 적은 일기로 『간문일기(看聞日記)』라고도 한다. 1416년부터 1448년 사이 33년간, 귀족사회와 막부에서 일어난 일과 노교젠(能狂言), 다도, 꽃꽂이 등의 예능, 당시 시정의 소소한 풍속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실고 있으며, 다도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순사다회(順事茶會)는 순차(順次) 또는 순회(順會)라고도 하며, 『간문일기』에 의하면 1394년부터 1428년 사이에 황실가 중 하나인 후시미노미야(伏見宮家)에서 열렸다. 「순차다회는 다도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양식으로 확립된 작법으로,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며 다회를 개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²⁹⁾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다회를 열기 때문에 다회를 통해서 다도를 수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순사다회라는 투차방식의 다회는 진행자 즉 선두(先頭) 역할을 참석자 전원이 윤번제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다음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1395년 2월 20일 갑자기 다회가 열렸다. 아야노코지 산미(綾小路三位), 시게아리 아손(重有朝臣), 나가스케 아손(長資朝臣), 주조스(壽藏主) 등이 모였다. 지금부터 순사(順事)로 하여 진행역 담당역은 매번 순번을 정하기로 했다. 오늘은 어소님(御所様) 즉 요시히토(榮仁)친왕이 진행역이 되어 상품을 내놓았다. 아야노코지 산미가 가장 많이 맞추어 먼저 상품을 차지하고, 나머지 상품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다.」³⁰⁾

이는 친왕이 자신의 어소에 친구를 초대하여 갑자기 열린 다회의 모습인데, 이 다회는 상품을 걸고 차의 맛을 얼마나 빨리 많이 알아맞히는가를 겨루는 내기, 즉 투차에 관한 기록이다. 누군가 상품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어소에서 열린 이 투차 다회에서는 어소의 주인인 요시히토친왕이 상품을 내고 진행역 할도 맡았던 것이다. 투차의 진행은 여러 잔의 맛을 알아맞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낸 사람이 좋은 상품을 차지하게 되었다. 궁중에서도 이처럼 상을

29) 谷端昭夫 上掲書 p.82

30) 熊倉功夫(1994) 前掲書 p.160

応永二十三年二月廿日。俄有御茶会。三位。重有朝臣。長資朝臣。壽藏主等候。事今可為順事各被結番。今日者御所様為御頭。被出懸物。三位一矢数取懸物。相殘懸物取落孔子。

결고, 그 상을 차지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매사를 천천히 신중하게 한다는 귀족생활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활기를 발견할 수 있고 인간적인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2.8. 여러 계층이 어울리는 운각다회

궁중에서는 하급 관리나 시종 나인할 것 없이 남녀가 다회를 즐겼지만, 값비싼 차나 좋은 차를 마실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차의 종류 가운데 『운각(雲脚)』³¹⁾이란 악차(惡茶) 혹은 조차(粗茶)를 말한다. 운각이라는 문자는 이미 중국의 다서에 나오는데, 차를沀을 때 표면에 생기는 거품이 오래 남아 있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서민들 사이에서 운각차를 이용하여 차 마시기를 놀이로 삼아 크게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간문일기』에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운각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1396년 윤5월 14일 다이반도코로(臺盤所)에서 운각다회가 시작되었다. 시종들과 나인들, 하급관리 등 남녀가 뒤섞여 순사다회를 하는데, 이는 매년 의례히 열린다.³²⁾

다이반도코로(臺盤所)는 궁중이나 귀족의 음식을 만드는 곳 혹은 나인들이 일하거나 대기하는 방을 말한다.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직급이 낮은 남녀가 모여 떠들썩하게 차를 마시는 차의 맛을 구별해내는 놀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미 당연히 열리는 연례행사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초반에 운각차는 일반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민간에서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운각다회(雲脚茶會)를 즐기기 시작했다. 운각다회의 진행은 『순사다회처럼 제비를 뽑아 순서와 역할을 정하여 진행하지만, 상품이 따로

31) 村井康彦(2002) 『雲脚』 『茶道大事典』 角川書店 p.159

雲脚은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사전 『下學集』에 「나쁜 차의 이름이다. 말은 차의 거품이 빨리 사라짐이 뜬구름이 빠르게 가버림과 같다.(惡茶の名也、言は茶泡の早く滅え浮雲の早く過ぎ去るが如き也)」

32) 熊倉功夫(1994) 前掲書 p.160

応永二十四年潤五月十四日。於台所雲脚茶會始之。侍從局男女濟々相交。順事也。是毎年儀也。

없고 결과에 따라서 벌을 준다」³³⁾는 점이 귀족들이 진행하는 순사다회와 다른 점이다.

3. 천황의 의례에 도입되는 와비다도

3.1. 천황의 뱃놀이와 다도

에도 초기 고미즈노오(後水尾)³⁴⁾ 천황이 1629년에 아들에게 양위하고 고미즈노오인(後水尾院)으로 인세이(院政)정치에 관여하다가, 이후에는 활동 시기 중 뛰어난 역사적식을 바탕으로 당시 향간에 유행하던 무사나 도시민 사이에 널리 유행하던 다탕과는 다른 풍의 다탕(茶湯)을 구사했다. 자신의 선동어소(仙洞御所)와 슈가쿠인(修學院) 이궁(離宮)에서 의전(儀典)의 한가지로써 다연(茶宴)과 주유(舟遊)에 어울리도록 다실을 짓고 연못을 조성하였던 점이 특징이다.

무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다탕은 히데요시가 「다도」방식으로 천황에게 차를 헌상한 이후, 궁중에서도 다도를 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에도초기 특히 고미즈노오인의 시기까지 궁중의 차는 약간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1633년 8월부터 다인이자 다이묘(大名)인 고보리 엔슈(小堀遠州)가 설계와 시공을 시작한 고미즈노오인 선동의 정원은 1636년 4월에 완성되었다. 「정원에 는 연못을 파고 그 둘레에 돌 석축을 두르고, 인공섬을 만들어 돌다리로 건너가게 했다. 연못 주변에는 인공산도 만들고, 휴게소와 다실도 만들었다.」³⁵⁾ 임제종의 승려로 긴카쿠사(金閣寺)의 주지 호린 조쇼(鳳林承章)가 1635년부터 1668년에 걸쳐 쓴 일기 『격명기(隔冥記)』에는 당시의 다인, 화가, 학자, 시인 등 「귀인들 사이의 유희」³⁶⁾ 즉 상류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다소 긴 인용이지만 이 기록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동어소에서 열린

33) 筒井宏一(1987) 『茶會論』 『茶道聚錦』1 小学館 p.148

34) 1596-1680 재위 1611-1629

35) 森蘊(1974) 『小堀遠州』 創元社 p.160

36) 横谷一子(1999) 「『隔冥記』にみる一町人の文芸と古典受容」 『佛敎大學大學院紀要』27 佛敎大學 p.131

다회의 모습에서 천황이 주관하는 다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1637년 9월 18일에 고미즈노오인은 선동어소에서 손님 앞에서 차단지를 개봉하여 차를 대접하는 방식인 구치키리(口切) 다회를 열었다. 당일 초대된 손님은 9명이었고, 차는 칙명에 따라서 임제종의 승려 호린 조쇼(鳳林承章)가 차의 책임자인 다두(茶頭) 역할을 담당하여, 농차(濃茶)와 박차(薄茶)를 타서 대접했다. 손님을 모신 서원(書院)에는 목계(牧谿)가 그린 한산습득(寒山拾得), 용과 호랑이 그림 등, 3개의 족자를 걸었고, 은으로 만든 삼구족(三具足)³⁷⁾, 불박이 선반에는 향로와 바구니를 장식하고, 다옥(茶屋)의 도코노마(床間)에는 남송(南宋)의 임제종 승려 지제쓰 도추(癡絶道冲 1169-1250)가 화찬(畫讚)을 쓴 포대(布袋)화상 그림을 걸었고, 작은 선반에 향로와 상자를 장식해두었다. 매우 격조 높은 장식으로써 다실의 전형적인 장식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다실에서 연회와 유희를 즐긴 뒤에 달이 뜨기 시작한 정원에 나아가 연못 가운데 섬에 설치한 비단자리(錦座)에서 한참을 보냈다. 그 후에 배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즐기고, 정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무용을 감상한 후에 연회를 마쳤다.』³⁸⁾

다회를 열었던 선동어소의 당시의 다실은 소실되었지만, 지금도 연못과 주위의 경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서 승려가 다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궁중에 출입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다회의 진행을 위하여 『형식상으로 속세를 떠난 승려의 신분』³⁹⁾으로 입궁하여 차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센리큐의 전례(前例)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를 위하여 넓은 서원과 차를 마시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좁은 다실을 옮겨가며 연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는 농차와 박차 2가지를 대접하는 센리큐가 대성한 와비(侘び)다도의 방식이 궁중에도 도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와비다도는 승려와 호상(豪商) 사이에서 형성되어 증세에 무사계층에서 애호되던 다도 양식으로써, 검소하고 선적(禪的)인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궁중의 다도 양식과 대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37) 三具足은 仏具의 호칭으로써, 향로·촛대·꽃병 등을 3가지를 한 세트로 장식한다.

38) 浅野二郎, 仲隆裕, 藤井英二郎(1995) 『わび茶と露地(茶庭)の変遷に関する史的考察』 『千葉大学園芸学部学術報告』49 千葉大学 pp.95-96

39) 村井康彦(2004) 『千利休』 講談社 p.203

3.2. 상황의 권력과 다도

에도막부의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04-1651 재직 1623-1651)의 조정에 대한 불손한 조치가 반복되자, 미즈노오천황은 양위한 후에 천황의 후견인으로써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1651년에는 출가하여 불문(佛門)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며 상황(上皇)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막부는 상황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궁(離宮)을 조영하기를 권하며 지원했다. 상황은 이전부터 히에산(比叡山) 자락 슈가쿠인(修學院)에 이궁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659년에 상황의 이상을 실현하는 대규모의 시설이 완공되었던 것이다. 슈가쿠인 이궁은 상황의 이상이 구현된 산장(山莊)으로써 인공 연못과 곳곳에 정자와 다옥으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교토의 명승지이자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 다실을 볼 수 있는 대규모 정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1662년 10월 18일 상황은 슈가쿠인 이궁에 이복동생인 도코(道暉)친왕, 만수인 노미야(曼殊院宮) 등 4명을 초청하여 구치키리 다회를 개최했다. 다회에서 음식과 차를 대접한 뒤에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 정자에 올라가서 농차를 즐겼다.』⁴⁰⁾

가나가와현 하코네초(箱根町)에 위치한 오카다(岡田)미술관에 소장된 슈가쿠인도병풍(修學院圖屏風)은 당시의 경관을 6폭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림에는 하어다옥(下御茶屋)과 상어다옥(上御茶屋)의 모습이 매우 정밀한 채색으로 묘사되어, 다회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상어다옥에 속한 인운정(隣雲亭)의 뒷마루에 해당되는 선시대(洗詩臺)에는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는 승려 차림의 귀인이 그려져 있고⁴¹⁾ 연못에 떠 있는 배에는 귀족들의 주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병풍 그림에는 고미즈노오 상황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슈가쿠인 이궁이 묘사되어 있는데, 필자가 본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뱃놀이를 즐기기에 알맞도록 인공섬과 정자 등으로 조성한 연못과 특히 연못을 조망하며 차를 마시며 이상의 세계를 즐기려던 공간 구상

40) 浅野二郎, 仲隆裕 藤井英二郎 上掲書 pp.94-95

41) 작가미상<修學院圖屏風> 제작시기 1673년-1681년경 115.6×358.6cm 슈가쿠인 초창기의 모습을 충실히 전해준다. 여러 계층의 행락객의 모습과 고미즈노오상황으로 보이는 승려차림의 인물이 있음을 보아 상황의 주문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

은 최고의 권력이 누릴 수 있는 다도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3.3. 궁중다회 격명기(隔莫記)

격명기(隔莫記)는 임제종의 사찰 긴카쿠사(金閣寺)의 주지 호린 조쇼(鳳林承章 1593-1668)가 자신이 어전에서 총진행을 담당한 다회의 모습을 쓴 일기이다.

『1643년(寬永20)3월 26일 날씨 쾌청.

고미즈노오상황의 선동의 다옥에서 상을 차려 대접하다. 다옥의 도쿄노마에 건 족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메야마(龜山)천황의 친필이다. 다카오사(高尾寺)의 스님이 병에 꽃꽂이를 했다. 식사용 도구와 과자는 시바야마 다시젠(芝山大膳)공의 사택에서 마련했다. 청정한 곳을 택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빌려다 썼다. 그 밖의 도구는 선동의 부엌에서 빌렸다.』⁴²⁾

호린 조쇼는 이 연회가 열리기 여러 날 전에 상황으로부터 다회를 열라는 명령을 받고, 당일까지의 과정을 일기에 기록했다. 예를 들어 다도구를 대령하는데 오래되고 명물이라고 알려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천황과 같은 존재이며, 천황은 곧 신(神)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여, 다도구는 모두 새것을 준비했다. 황실에서 신에게 제사지낼 때, 그릇은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 한 번 쓰고 버림으로써 신성성을 유지하는 전법을 다도의 경우에도 따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동의 다실에서 열린 궁중 다회에서 도쿄노마에 족자를 걸고, 꽃꽂이를 한 상황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센리큐 이래 와비(侘び)라는 미의식을 중시하던 다도의 작법이 궁중에도 도입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흥미롭다. 장식과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족자는 약 360년 전에 재위했던 가메이(1249-1305)천황의 친필로 만든 것이었다. 『족자처럼 중요한 도구는 없다. 손님에게도 주인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 한마음이 되게 해주는 도구라 할 수 있다.』⁴³⁾는 다도의

42) 熊倉功夫(1995) 『史料による茶の湯の歴史』(下) 主婦の友社 p.277

寬永二十年三月廿六日、晴天白日。獻御膳・獻茶於仙洞。於仙洞之御茶屋、上御膳也。御茶屋之床之内掛物者、予所持之龜山院之宸翰掛之也。高雄之上人立花一瓶、於御床、仕也。御膳之御道具・御菓子於芝山大膳公私宅、而此方之者拵也。自清所、諸事御道具借寄也。其外之御膳之拵、於御台所、而仕立也。

미적 기준이 반영되어 있다. 족자는 선승이 자신의 선의 경지를 글로 밝힌 휘호이거나 귀인이 쓴 글씨나 그림으로, 다회에서 화제(話題)로 삼아 깊은 뜻이나 유래를 이야기하며 다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3.4. 천황의 다도가 지니는 탈형식성

다음의 인용문에 나타난 다회의 큰 특징은 어소 즉 어전에서 식사와 연회를 진행한 뒤에 장소를 바꾸어 따로 다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고미즈노오상황은 모두 드신 후에 정원의 연못에 배를 마련하도록 하여, 배에 올라 뱃놀이를 하셨다. 배를 타고 연못 반대편에 있는 다옥에 가시니 이내 다회가 열렸다. 차를 타는 일은 후지와라 쓰네히로(藤原經廣)가 담당하기로 했으나, 상황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하게 되었다. 상황에 대접하는 차와 손님들에게 각각 농차와 박차를 탔다. 다도구는 모두 새로 만든 것이다. 차를 마신 후에 과자를 대접했다. 그 후에 상황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⁴⁴⁾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가서 언덕 위에 세운 다옥에서 다회를 열었다. 다실 앞에 연못을 만들어 배를 타고 건너서 다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대를 조성했다. 이는 다도에서 로지(露地) 즉 다실 앞의 정원을 설치해두고, 로지를 거쳐 다실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로써 손님은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연못을 건너는 일은 로지를 통과하는 일에 대응되는 과정으로써, 다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배를 탄다는 행위에 별세계(別世界) 혹은 이상세계(理想世界)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과 손님들에게는 일반적인 다도의 작법과 같이 먼저 말차(抹茶)를 진하게 탄 농차(濃茶)를 대접하고 과자를 대접한 다음에 이번에는 말차를 연하게 탄 박차(薄茶)를 대접했다. 당시에 정착된 와비다도의 작법이 궁중의 다도에도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차를 2잔 대접하면서 과자도 곁들이는

43) 박전열(2012) 『남방록 연구』 이른아침 p.107

44) 熊倉功夫(1995) 前掲書 p.278

御膳被召上、而御浅水之御舟拵、被乘、御舟御遊。自御舟、被為成御茶屋。則御茶被相催。御茶堂雖頼勸修寺、依勅命、而予立茶屋也。御前御茶・御相伴之御茶、立濃茶、而薄茶捧御前也。御茶具不殘、新拵也。御茶以後、御菓子出之。御咄色々。

작법 역시 와비다도의 작법과 미의식이 도입된 것이다.

3.5. 천황의 다도 정치

고사이인(後西院) 천황⁴⁵⁾은 문학에 조예가 깊고 서도와 향도는 물론 다도를 즐기고 서도에도 능했다. 겐푸쿠(元服) 즉 성인식 때는 양위하고 은거중인 부친 고미즈노오 천황을 저택에 맞이하여 다회(茶會)를 개최할 정도로 차에 관심이 깊었다. 그는 재위중에도 「궁궐에 정자 즉 어정(御亭)에 상항을 모신 가운데 다른 황족도 초대하여 빈번히 다회를 열었다.」⁴⁶⁾

고사이인천황은 불과 10년만에 황위를 이복동생인 레이겐(靈元)천황에게 양위하고 거처를 선동(仙洞)⁴⁷⁾으로 옮겼다. 선동에서 은거생활을 하는 중에 동생들 초대하여 1678년부터 1685년 사이에 「26회에 걸쳐 다회를 열었던 모습이 『고사이인어차지탕기(後西院御茶之湯記)』에 상세하게 기록」⁴⁸⁾되어 있다. 그는 1680년 궁중에 땅을 확보하여 「크고 작은 다실 4채와 광대한 다실의 정원을 만들어 차를 즐겼다.」⁴⁹⁾

사가천황은 정치가로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주재자로서 차를 즐기고 재배를 촉진하는 등 차문화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에도시대의 초기, 그때까지 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휘하에 있던 무사들이나, 사카이(堺)·교토·나라 등지의 상인들이 주도하던 와비다도가 궁중이나 구계(公家) 즉 조정관리들의 세계에도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다도는 엄격한 정신세계와 형식미를 추구하는 와비다도의 범주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연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차를 마시되 와비다도의 형식을 일부 도입하

45) 1638-1685 제111대 천황 재위 1655-1663 일명 後西天皇 본고에서는 고사이인으로 표기

46) 谷端昭夫(2005), 前掲書 p.249

47) 선동(仙洞)은 태상천황 즉 상황이 거주하는 어소(御所)로써, 선인(仙人)의 거처라는 미칭(美稱)

48) 谷端昭夫(2005) 上掲書 pp.360-377

예를 들어 1679년(延寶7年)에는 서원(書院)에 숙부, 동생, 매제 등을 초대하여 다회를 열었는데, 도쿄노마에 족자를 걸고, 향을 피우고, 간단한 식사(懷石)를 내고 차를 대접하는 등 와비다도의 작법을 그대로 도입하고, 꽃꽂이, 술, 다완, 족자 등의 그림까지 그려넣은 상세한 다회의 기록을 남겼다.

49) 浅野二郎, 仲隆裕, 藤井英二郎, 前掲書 pp.95-96

는 방식으로 중세의 연회형식이 증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중기에 이르면 궁중과 구계에 와비다도가 도입되며 다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3.6. 황족의 문인취미와 다도정치

고노에 이에히로(近衛家熙 1667-1736)는 에도시대 중기의 구계로써 관백, 섭정, 태정대신 등의 고위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며, 모친은 고미즈노오천황의 황녀이고, 레이겐(靈元)천황의 황녀를 처로 맞이했으며, 말년에는 불문에 입문하였다.

서도에 능하고 독자적인 경지를 열었다. 회화는 수묵화를 즐겨 그렸다. 다도는 지인(慈胤)친왕에게 배웠다. 고래의 조정, 무가의 예법 등에 통달하고, 예전의 의례를 연구하였다. 구계 다도에 통달한 다인이며, 『괴기(槐記)』⁵⁰⁾에 나타나 바와 같이, 손님을 불러 스스로 다회를 열고, 와비다인과 교류했다.

그는 당시에 무사들 사이에 유행하던 「엔슈류(遠州流)나 소탄류(宗旦流)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여 궁중에서 배운 다도를 유지하며 자기 나름의 다도방식을 전개해 나아갔다.」⁵¹⁾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1713년부터 24년 동안 진행한 388회의 다회 기록으로 『어다탕지기(御茶湯之記)』를 남겼다. 자기가 연 다회를 자기가 기록하는 양식을 자회기(自會記)라 하는데, 이 자회기에는 매년 연초에 신년을 축하하는 다회인 어다탕시(御茶湯始), 여름내 보관해온 차 단지를 개봉하는 의식을 겸하는 구치키리 다회 등과 개성적인 다도구의 평가, 다실의 이상적인 구조 등을 논하며 궁중다도의 개성적인 전개를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고노에 이에히로의 인품과 박학다식하며 높은 식견을 지니고 있음은 의사이자 다인인 야마시나 도안(山科道安)이 그의 언행을 일기풍으로 기록한 『괴기(槐記)』¹¹권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괴기』 자체는 다서(茶書)라고 한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풍부한 전적(典籍)이나 고사(古事) 등 많은 문화사료(文化史料)가 포함되어 있다.」⁵²⁾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회의 기록과 역대 다인의 비평, 다도구의 특징과 소개

50) 「槐」는 중국에서 太政大臣을 의미하니, 「槐記」란 近衛家熙의 언행록이라는 뜻이다.

51) 林左馬衛(1985) 「近衛予楽院と「槐記」」 『茶道聚錦』6 小学館 p.217

52) 柴田実(1977) 「槐記解題」 『茶道古典全集』5 淡交新社 p.488

등이 기본을 이루지만, 다도와 가까운 문화분야인 꽃꽂이(立花)와 향도(香道)를 비롯하여, 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과 중국의 학문, 전적(典籍), 고사 등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이점은 당시 유행하던 문인취미(文人趣味)⁵³⁾가 궁중에도 향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어다탕지기』에 나타난 다음 다회기에는 보면 궁중다도의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1713년(正徳三年) 8월 27일

기이(紀伊)의 수령 마쓰다이라(松平)가 관동으로 부임하기에 앞서 인사차 만나다. 이세(伊勢)의 수령 구루(久留)가 함께 오다.

一、 족자는 후지와라노 도시타다(藤原俊忠)의 고필(古筆) / 一、 꽃꽂이는 홍매화와 동백꽃을 난반(南蛮)에서 온 꽃병에 했다. / 一、 가미는 둘레에 9개의 선이 그려진 구륜(九輪) 모양 / 一、 벽걸이 선반은 하나의 삼나무 판을 가로질러 만든 센리큐양식 / 一、 물단지(水指)는 청자에 양각으로 모란을 새김 / 一、 농차단지는 등나무 넝쿨이라는 이름이고, 선반위에 물구기 / 一、 차 숟가락은 가나모리 소와(金森宗和)가 만든 것 / 一、 다완은 새로 구운 하기가키(萩焼) / 一、 향합은 남경(南京)식의 채색그림, 의(義)라는 글자를 투각으로 새김 / 一、 병풍은 요보쿠(養朴)의 그림, 기이(紀伊)의 수령이 진상한 것.⁵⁴⁾

이 다회기는 『어다탕지기』에 실린 308회의 기록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써 간략하지만, 고노에 이에히로가 손님을 맞아 진행한 당시 궁중다회의 상황을 파악해낼 수 있다. 두 손님은 무사들이었다. 마쓰다이라 노부쓰네(松平信庸)는 사사야마번(篠山藩)의 번주이자 교토의 정무를 담당하는 역할인 교토소사

53) 본래 고대중국에서 발생된 개념으로 교양있는 사람이 詩, 書, 畫 등을 스스로 즐기며 타인의 평가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풍아를 추구하는 세계관을 말한다. 차츰 詩, 書, 畫 외에 다도, 꽃꽂이, 향도를 포함하게 되었다. 다도의 경우 煎茶道라는 새로운 방식이 애호되었다.

54) 谷端昭夫(2005) 掲書 p.304 (『御茶湯之記』 재인용)

正徳三年八月二十七日 松平紀伊守殿関東御下向為御暇乞參上、久留伊勢守御相伴 / 一、 御掛物 御子左俊忠卿 / 一、 御花生 花紅梅・椿、南蛮御花入 / 一、 御釜 九輪 / 一、 杉一重休台 / 一、 水指 青磁罌牡丹 / 一、 御茶入 藤卷 棚ノ上二柄杓 / 一、 茶杓 宗和 / 一、 茶碗 新萩焼 / 一、 香合 南京染付、義ノ字スカシ / 一、 屏風 養朴筆紀伊守進上也

대(京都所司代)에 재임하던 중에 에도로 떠나게 되었다. 이때 교토 어소의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던 히사토메 마사키요(久留正清)가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던 차에, 신분은 다르지만 3 사람이 한 자리에서 다회를 열게 되었다.

다회의 기록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한 것이지만, 다회의 구성과 준비물 진행 과정 등을 읽어낼 수 있다. 다회를 진행할 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먼저 『御掛物』 즉 족자를 걸었다가 나중에 『御花生』 즉 꽃꽂이를 선보인다는 다회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을 따르고 있다. 여러 다도구의 명칭이나 특징, 소유자를 밝히고 있는데, 병풍은 이날 참석자의 한사람인 히사토메 마사키요가 고노에 이에히로에게 진상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실에서 병풍을 한 귀퉁이에 세워둠으로써 병풍의 안쪽에 주인과 손님이 앉은 부분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김으로 다회 자체를 보다 격조 있는 자리로 꾸며내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병풍의 그림을 그린 가노 쓰네노부(狩野常信 1636-1713)는 요보쿠(養朴)라는 호를 썼는데, 에도막부의 어용화가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병풍을 다실에 장식한다는 것은 와비다도라면 사용하지 않는 그림병풍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1724년(享保九年) 12월 7일 이마오지(今大路) 치부(治部) 다이스케(大輔)에게 정오에 차를 대접하다. / 손님은 우쿄(右京)와 도안(道安) / 족자는 잇큐(一休)가 쓴 작은 색지 / 향합은 칠기이며 앞에는 물떼새를 그려넣고 뚜껑 안쪽에는 비파를 그림 / 술은 빌려온 것. 요지로가 만들었는데 돌레에 눈싸라기 모양이 새겨짐 센리큐가 주선했다는 글이 있다. / 카이세키를 진행했다. / 된장국은 아구를 껍질과 내장을 함께 끓인 것 / 종지에 류큐(琉球)감자에 깨를 넣어 무침 / 국은 두부와 순무 뿌리와 달걀을 넣고 끓임 / 맑은 국은 다가미(田上)강에서 잡은 빙어와 머위를 넣어 맛을 냄 / 과자는 말린 김과 설탕을 바른 떡 / 중간후계 / 꽃병은 대나무 대롱에 구멍을 하나 뚫고 여기 꽃을 꽂았다. 센리큐 양식 / 꽃은 활짝 핀 복수화 2송이 / 다완은 시가라키(信樂) 도자기 / 물단지(瀬戸)에서 만든 차단지 모양. 귀가 달리고 비젠(備前)에서 만든 도기 뚜껑을 맞추어 썼다. 이런 모양의 물그릇은 칠기 뚜껑이 좋은데, 특별한 장식이 없는 칠기 뚜껑에 작은 손잡이가 어울린다. 오는 가을에 그렇게 손질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뜻 전했습니다. / 차 손가락은 조슈인(常修院) 지인(慈胤) 법친왕에게 빌린 것 / 농차단지는 주머니가 달려 있다. / 차를 다 마신 후에 일어나 앞방으로 옮겨 향도(香道)를 즐겼다.』⁵⁵⁾

정오에 시작하여 점심이 포함되는 다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한 이 다회기는 천황은 아니지만 당시 궁중의 막강한 실권을 지니고 있는 인사의 점심으로 써는 매우 소박한 음식이라는 점, 일부 다도구는 빌려다 쓰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회에서의 식사를 회석(會席)으로 표기한 점은 이미 회석(懷石)이라는 표기가 정착되어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도 형성 초창기의 표기를 쓰고 있다는 보수성을 보여준다.⁵⁶⁾ 고노에 이에히로는 사용된 다도구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기록하도록 했다. 다실 안에 둔 물단지(물)를 보고 투박한 몸체 부분과 경쾌한 느낌을 뚜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미의식을 제시하였다. 즉 몸체부분은 세토에서 만든 도자기인데, 뚜껑은 비젠 지방에서 생산된 도자기 제품을 써서 뚜껑이 더 투박하여 균형감도 없고 전체가 거칠게 느껴진다는 자신의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감각은 오늘날 일본다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미의식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날의 모임은 다회를 마치자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 향을 즐기는 순서로 이어졌다.

나라시대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불전에 향(香)을 피우는 풍습이 이어지고, 헤이안 시대에 귀족들 사이에 향을 즐기는 방식이 다양화 되었다. 자리를 옮겨 향도를 즐겼다는 이 대목은 에도시대에는 향을 즐기는 방식은 정형화되고 차를 마시기 전이나 후에도 당연히 여러 사람이 어울려 향을 즐기며 모임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5) 柴田美(1977) 『槐記』 『茶道古典全集』5 淡交新社 pp.17-18

享保九年十二月七日 今大路治部大輔御献茶上ニ參候、午刻參上 / 御前 右京 道安 / 掛物 一休、小キ色紙 / 香合 塗物、粉ニテ表ニ千鳥、見返シテ琵琶 / 御釜 拝借、与ニ郎の小籠、利休ヨリ取次ノ文アリ / 御会席アリ / 御汁 鮫鱈、皮ワタ共 / 猪口 琉球芋、胡麻アヘ / 煮物 スクヒ豆腐、鈴菜の株、スクヒ玉子 / 吸物 田上川ノ氷魚、落ノ臺 / 御菓子 寒晒青苔カケ、數砂糖 / 御中立 / 筒 一重切 利休 / 花 福寿草ノ満開ニ輪 / 茶碗 信楽 / 水指 瀬戸ノ茶壺ナリ、耳アリ、備前合セ蓋、加樣ノ物ハ塗蓋好シ / 何事ナキ塗蓋ニ、小キ取手好シ、來秋仰付テ下サルベシトノ上意ナリ、難有キ旨御請セラル / 茶杓 常門様、筒共 / 茶入 袋 / 御立、表ニテ御香アリ

56) 筒井紘一(2002) 『懷石の研究』 淡交社 p.89 참고

다도의 초기에 다인들은 會席과 懷石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모임 연회자리 혹은 그 자리에서 하는 식사라는 뜻으로 애매하게 썼다. 山上宗二가 1588년경에 쓴 『山上宗二記』에 「會席之事」이 나타나는 會席이외에도 몇 가지 용례가 있지만, 南方宗啓가 1868년에 사본했다는 『南方錄』 「墨引」의 「炭クハヘタル上ニテ懷石出スベシ」에 懷石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다. 이후에도 오랫동안 會席과 懷石은 혼용되었다.

4. 결론

일본의 중중에서 전개된 다도문화는 천황을 중심으로 황족과 귀족에 의한 한정된 범위에서 전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에 유학한 승려나 사신이 천황에게 중국의 차씨을 헌상한 이래로, 차는 호국불교 의례에 진귀한 음료로 동원되어 천황의 특권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헤이안 시대에 이전에는 없던 맛과 향기를 지닌 차를 마신다는 것은 천황이나 그 측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되며, 칙선집인 『능운집』나 『문화수려집』에는 차를 마시는 상황을 하나의 이상세계로 묘사하는 한시가 수록되기에 이른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정치의 실권을 천황으로부터 장군으로 옮겨가자, 막부의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차문화가 형성되며, 후대에 무가(武家)다도의 연원을 이룬다.

에도시대에는 여러 천황이 렌가와 더불어 다도 향도를 즐기고 그 주위의 황족이나 공경이 궁중에 다도를 도입하여, 무가와 서민사회의 다도를 도입하면서도 이들과는 달리 폐쇄된 방식으로 다도를 즐기곤 하였다.

천황제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천황 혹은 왕권과 깊이 관련된 전통문화 유산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다도의 경우 중세의 무사사회에서 다도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와비다도를 중심에 놓고 다도를 보았을 때는 부합되지만, 헤이안 시대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최고 권력과 밀착되어 있던 다도의 경우를 무시한 관점이 된다.

때로는 천황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다회가 열렸지만, 「다도라는 새로운 문화를 천황에게 바침으로써 권위가 부여되고 존재이유가 한층 더 고양되었다.」⁵⁷⁾

본고에서는 무사사회의 다도는 일단 논외로 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궁중의 귀족과 궁중 사람들이 차를 접하고 즐겼으며, 나아가 천황은 차를 놀이와 연관 시키거나 정치와 연관시키며 의례로써 궁중의 차를 전개시켜 왔음을 검증할

57) 廣田吉嶺(2012) 『近現代における茶の湯家元の研究』 淡文社 p.52

수 있었다.

궁중의 차는 신흥세력이자 견제의 대상이기도 한 무사들이 차의 작법을 도입하여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다회에 초대하는 인물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시종 장소나 진행의 절차를 중시하며 유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여, 의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시도된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근대에 들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도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레로 활용되고 있다. 천황이 문화행사나 외교행사에 다회의 주최자가 되어, 일본문화의 아이덴티티를 발신하며 문화적 우월감을 자랑하기도 한다.

차를 마시는 작법과 차의 정신세계를 오랜 동안 체계화해온 일본의 다도가 천황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는 현상은 통시적 관점에서 일정한 맥락을 지니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金富軾(1993) 『三國史記』 卷三 第二十七 을유문화사 p.74
 김진숙(2011) 『중국차문화 茶經』 국학자료원 p.329
 박전열(2012) 『남방록 연구』 이른아침 p.107
 浅野二郎外(1995) 『わび茶と露地(茶庭)の変遷に関する史的考察』 『千葉大学園芸学部 学術報告』49 千葉大学 pp.95-96
 柴西(2000) 『喫茶養生記』 講談社 p.78
 熊倉功夫(1990) 『茶の湯の歴史』 朝日新聞社 p.33
 嵯峨天皇外(1926) 『凌雲集』 『日本古典全集』15 日本古典全集刊行会 p.54
 佐野和規(1991) 『季御読経における請僧』 『待兼山論叢史学篇』25 大阪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pp.57-82
 佐伯有義(1929) 『日本後紀』 『六国史』 卷5 朝日新聞社 p.209
 柴田実(1962) 『槐記』 『茶道古典全集』12 淡交新社 pp.17-18
 相馬範子(2005) 『季御読経における引茶について』 『芸能史研究』169 芸能史研究会 p.1
 淳和天皇外(1926) 『経国集』 『日本古典全集』15 日本古典全集刊行会 p.174
 谷端昭夫(2005) 『公家茶道の研究』 思文閣 p.10
 _____(2007) 『茶道の歴史』 淡交社 p.31
 張建立(2004) 『茶道と茶の湯』 淡交社 p.110
 筒井紘一(1987) 『茶會論』 『茶道聚錦』1 小学館 p.148
 中村修也(1999) 『柴西以前の茶』 『茶道の歴史 茶道学大系2』 淡交社 p.371
 廣田吉崇(2012) 『近現代における茶の湯家元の研究』 淡交社 p.52

- 村井康彦(1985) 『茶の文化史』 岩波書店 p.10
森蘊(1974) 『小堀遠州』 創元社 p.160
若原英弍(1984) 『古代・中世の茶』 『茶道聚綿』 小学館 p.34

접 수 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완료: 2016년 07월 27일
게재결정: 2016년 08월 17일

<Abstract>

Political meaning of the tea ceremony in the Japanese Imperial Court courtesy

Japan has a traditional culture inheritance to associate with the Emperor deeply a lot. The Japanese tea ceremony was formed with a priest of the Middle Ages in samurai family society and developed.

This tea ceremony is called an austere refinement *dado* and makes much of the element which is like the Zen which is holy in thriftiness. However, the tea ceremony of the Imperial Court was formed at early time while it was monopolized led by the Emperor. The Emperor held a tea party by means to strengthen sovereignty according to a political intention.

When the new tea ceremony called the austere refinement *dado* was formed in the Middle Ages, the samurai received authority by giving this to the Emperor and was going to have it. I studied it the Emperor and a noble received it, and how they enjoyed tea by this report led by the Emperor. Emperor enjoyed tea as play, or the Emperor conjugated in political courtesy.

As a result, the tea party of the Imperial Court took in the austere refinement *dado* which was manners of the tea of the samurai and came to have various figures. The tea ceremony became available in modern times and stopped by if the interchange with the foreign country became active and was utilized in national courtesy positively.

I become the promoter of the tea party, and I show off identity of the Japanese culture, and the Emperor is proud of cultural sense of superiority to a culture event and a diplomatic event.

The Japanese tea ceremony systematized manners and an inner space of the tea which drank tea. In addition, there is a hit flow utilized for a political activity of the Emperor in this positively.